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255호 (2011년 5월 둘째 주)

연구기획조정실 · Tour.go.kr

[국토해양부] 스페인 가는 하늘길 완전히 열렸다.....	2
[국토해양부] 5월 황금연휴 대비 제주항공노선 261편(5.6만석) 추가운항.....	3
[농림수산식품부] 아름다운 농어촌, 한국과 세계를 잇다!	4
[문화체육관광부] 강변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 선도사업 본격 추진.....	7
[환경부] 5월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겨요 ~	11
[서울특별시] 세계 50여개국 대표 홍보 사절단 , 서울문화 체험 참가.....	12
[대전광역시] 대전둘레산길, 계룡산과도 만나다.....	14
[대전광역시] 대전시, 영화촬영지'급부상'.....	15
[대전광역시] 대전 금고동 제2매립장서 조선시대 미라 4구 발견.....	16
[경상남도] '제5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성황리에 마쳐	17
[충청북도] 과학벨트 조성 충청권 3개시·도 공조 이상없다	20
[충청남도] '한국 관광의 별' 백제단지 관람객 급증	21
[전라북도] 복분자 지역전략식품산업 선정 쾌거.....	22
[전라북도] 기적의 땅' 새만금 「중국특화 프로젝트」로 세계 경제 중심으로 비상.....	24
[전라남도] 전남도, 동남아 관광객 유치 발벗고 나서.....	27
[전라남도] 박지사, "나주 죽산보에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도심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명소화 추진.....	29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항공사의 가격인상.....	30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중국 관광 발전 연간 16.9%성장, 세계 평균 5배 초과.....	31

[국토해양부] 스페인 가는 하늘길 완전히 열렸다

- 유럽국가중 최초로 항공 여행·화물 자유화 합의 -

- 우리 항공사들이 운항횟수·도시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스페인에 취항할 수 있게 되어 한-스페인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유럽국가로는 최초로 스페인과 여객 및 화물운송에 대한 항공 자유화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한-스페인 항공협정상 우리 항공사들은 우리나라와 스페인 2개 도시(마드리드·바르셀로나)만 주4회 운항이 가능하여 노선선택이나 운항횟수에 제약이 있었다.
 - * 현재, 대한항공이 인천-마드리드 주3회 운항 중
- 특히, 최근 스페인 의류업체(Zara)의 아시아 지역 수출확대 등에 따라 양국간 항공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항도시 및 횟수제한으로 우리 항공사들은 운항노선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금번 한-스페인 항공자유화 합의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운항되고 있는 우리 항공사의 유럽노선을 남부유럽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한-스페인 항공자유화 합의를 계기로 오는 7월 예정되어 있는 한·EU FTA 발효에 따른 한·EU간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항공운송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럽국가와 항공자유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담당 : 국제항공과 오성실 주무관 (02-2110-6474) | 등록일 : 2011.05.02)

[국토해양부] 5월 황금연휴 대비 제주항공노선 261편(5.6만석) 추가운항

- 전년 동기대비 12% 공급증대로 좌석난 해소 -

- 연중 최고 황금연휴기간이 포함된 5월 제주도 국내항공노선에 총 261편(55,727석)* 추가 증편 운항하는 내용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출발공항	운항편수	공급좌석	비고
김포	189	38,158	-
인천	60	9,988	-
청주	8	1,200	-
부산	4	6,381	대형기투입
소계	261	55,727	

- 국토해양부는 금년 5월이 어린이날인 5일(목), 주말인 7일과 8일, 석가탄신일인 10일(화) 등 공휴일이 많이 포함되어 이 기간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 제주도 국내항공노선 좌석난 해소를 위하여 국내 7개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 한 달 동안 운항 및 공급좌석수를 크게 늘리도록 하였다

* 전년대비 공급석 확대(5월): 166만석→186만석(12% ↑)

-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제주도, 공항공사, 항공사, 김포 및 제주 항공관리사무소)과 합동으로 제주노선 탑승률 및 예약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 향후, 좌석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항공사 및 관계기관과 재협의를 하여 임시편 투입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참고로, 지난 4월중 제주노선은 총 181만석을 공급하여 탑승객 152만명을 수송하면서 탑승률 84.2% 유지하였다.

* 4월 공급석 : 1,806,336석(전년대비 10.5% 증)

* 4월 탑승객 : 1,521,814명(전년대비 6.5% 증)

* 전년대비 탑승률 추이(4월): 87.5% → 84.2%(3.3% ↓)

(국토해양부, 담당 : 항공산업과 추철규 사무관 (02-2669-6466) | 등록일 : 2011.05.03)

[농림수산식품부] 아름다운 농어촌, 한국과 세계를 잇다!

- 농식품부, 농어촌 관광 대표명소 'Rural-20' 선정 -

-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주로 어느 지역을 여행할까? 「2010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를 보면 서울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경상, 제주,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방문지의 경우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명동, 동대문·남대문 시장, 고궁, 남산타워 등이 상위 10위에 올라 있다.
- 하지만 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한 횟수가 증가할수록 외국인들의 위 명소에 대한 방문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
- 외래관광객 천만명을 예상하는 올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한국을 찾도록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국 농어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미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국 농어촌 20곳의 명소를 선정하여 이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외국인 체험단을 운영하는 등 농어촌을 한국의 대표 관광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Rural-20 프로젝트'를 출범시킨 바 있다.
- 동 프로젝트를 통해 주한 미국 대사(Kathleen Stephens), FAO 아태총회('10.9, 경주) 시 방한한 방글라데시 농업부 차관(C. Q. K. Ahmed) 등 총 2,305명의 외국인이 20곳의 농어촌을 체험한 바 있다. 이들 체험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3%가 재참여 의사가 있으며, 80%가 상품가치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외국인 관광지로서의 농어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프로젝트 추진 결과, 20곳 및 주변 관광지의 관광객 및 매출액이 각각 11.2% 및 17.4%가 증가하여, 테마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 공격적인 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10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새로운 명소 20곳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지자체 추천, 전문가 심사, 현장 방문 등 면밀한 선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 그 결과 산비탈 급경사에 조성된 계단식 다랭이 논으로 작년 한해 24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남해 다랭이 마을, 곤드레 나물·올챙이 국수 등 농촌 고유의 먹거리가 있는 횡성 산채마을, 흥부전 이야기와 남원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남원 달오름 마을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마을 20개소가 선정되었다.
- 농식품부는 선정된 20개소를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와 연계하여 외국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대사관, 어학당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외국인을 모집하여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Rural-20 체험단(1,000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올해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Rural-20 기자단(100명)'을 모집하여, 외국인 체험단과 함께 여행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에서 한국인과 세계인이 만날 수 있는 색다른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우리 농어촌의 아름다움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20곳의 체험거리·볼거리·먹을거리를 소개하는 브로셔 및 동영상 4개 국어(한·영·중·일어)로 제작하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국제여행박람회 등에 배포하고, 농어촌 여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Rural-20은 그동안 조성된 농어촌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어촌을 여행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참고〉 20개 대상마을 목록 및 마을별 특징

도	시 군	대 상 마을	특 징
경 기 (3)	양평	가루매 마을	◦ 배꽃수정하기, 염색체험, 각종 농작물 수확 등 계절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보유 ◦ 칠보산, 흑천, 양평 레일바이크, 새미원 등 주변 관광자원 풍부 ◦ 농촌마을가꾸기 장려상('10) 수상
	연천	나룻배 마을	◦ 인삼화분 만들기, 맨손으로 메기 잡기 등 고유 체험 프로그램 보유 ◦ 임진강 유원지 등 안보자원과 전곡리 선사유적지 등 독특한 역사자원 풍부
	여주	상호리 마을	◦ 산간지방에 자리잡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한국 농촌 고유의 체험과 경관 보유 ◦ 조선영릉, 명성황후생가 등 역사자원과 식물원, 온천 등 다양한 휴양시설 보유
강 원 (3)	횡성	산채 마을	◦ 특산물 곤드레 나물과 울챙이 국수, 횡성 한우 등 농촌 고유의 다양한 먹거리 체험 가능 ◦ 오대산, 금당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 배경 ◦ 농촌마을가꾸기 대상('10) 수상
	양양	해담 마을	◦ 낙산사, 한계령 등 우수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트래킹 코스 보유 ◦ 1급수 어종이 살고 있는 하천 등 깨끗한 자연생태 보존지역으로 자연체험과 레저체험이 가능 ◦ 농촌마을가꾸기 장려상('09) 수상
	인제	고로쇠 마을	◦ 화전민 체험, 견지남시 체험 등 산간지역 고유 프로그램 보유 ◦ 번지점프, 래프팅, 리버버킹 등 레포츠 체험 가능 ◦ 농촌마을가꾸기 우수상('10) 수상
충 북 (2)	영동	비단강숲 마을	◦ 금강, 봉화산, 양산8경 등 주변 관광자원 풍부 ◦ 뗏목체험, 와인만들기, 다슬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 가능 ◦ 농촌마을가꾸기 장려상('10) 수상
	진천	공예 마을	◦ 도자기, 목공예, 한지공예, 알공예 등 여러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독특한 공예체험 가능 ◦ 보탑사, 종박물관, 김유신탄생지 등 역사자원 풍부

도	시 군	대 상 마을	특 징
충 남 (2)	홍성	문당 마을	- 문패만들기, 황토와 흑미를 활용한 염색, 오리입식 체험 등 연중 다양한 체험 가능 - 김좌진·한용운 선생 생가, 천수만, 광천토굴 새우젓단지 등 주변 지역에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 - 농촌마을가꾸기 대상('03) 수상
	서천	이색체험 마을	- 특산물인 엄나무와 모시를 활용한 독특한 체험 가능 - 문헌서원, 촬영지로 유명한 신성리 갈대밭 등 관광자원 보유 - 농촌마을가꾸기 우수상('08) 수상
전 북 (2)	남원	달오름 마을	- 마을의 탄생배경인 이성계 장군의 전설, 흥부전의 태생지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 자원 보유 - 지리산 국립공원·둘레길, 광한루, 춘향테마파크, 혼불박물관 등 남원 지역의 볼거리 풍부 - 농촌마을가꾸기 장려상('04) 수상
	장수	주촌 마을	- 주논개가 태어난 마을로 복원된 주논개 생가지가 자리하고 있어 스토리텔링 자원 풍부 - 역사, 민속 문화, 전통음식 체험 가능
전 남 (3)	담양	무월 마을	- 한옥 민박집과 1.2km의 돌담이 있어 전통미 보유 - 흙과 짚으로 만드는 토우, 대나무 숲에서 재배한 녹차 체험 등 - 죽녹원, 소쇄원, 메타세콰이어길 등 담양 관광자원 풍부
	광양	도선국사 마을	- 통일신라 승려 도선국사가 머물렀던 옥룡사터가 자리하고 있어 이를 테마로 한 체험 가능 - 자연휴양림, 계곡 등 관광자원 풍부
	곡성	가정 마을	- 야생화 압화 공예 등 다수 농촌 체험 가능 - 기차마을과 가정역간 운행되는 증기기관차·레일바이크 등 활용 가능 - 농촌마을가꾸기 장려상('10) 수상
경 북 (2)	안동	저우리 마을	- 사군자, 국궁, 전통탈, 탈춤, 전통다례 등 전통체험 가능 - 주변에 하회마을,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 관광자원 위치
	청송	덕천 마을	- 송소고택, 청송초전택 등 고택 보유 및 고택 뜰에서 음악회 개최 - 주왕산, 대전사, 청송웅기체험 등 주변 관광자원 풍부
경 남 (2)	남해	다랭이 마을	- 산비탈 급경사에 조성된 다랭이 논은 남해 대표 관광지로 매년 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 - 소쟁기질체험, 바다 래프팅 등 농촌과 바다 체험 모두 가능 - 농촌마을가꾸기 장려상('02) 수상
	남해	문항 마을	- 갯벌체험, 개막이 맨손 고기잡이 체험, 모세현상 생태체험, 낚시바지선 체험 등 다양한 어촌체험 가능 - 우수어촌체험마을 최우수상('06)
제 주 (1)	제주	청수 마을	청수승마체험학교가 있어 승마체험 연중가능하고, 화산으로 형성된 독특한 지형(곶자왈)과 석부작 체험 등 고유 체험가능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 농촌사회과 하지는 사무관 (02-500-1821) | 등록일 : 2011.05.03)

[문화체육관광부] 강변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 선도사업 본격 추진

- 2015년까지 10개 선도 사업 15개 지역에 총 948억 원 투자 -

금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4대강 유역의 강변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지자체 지역발전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지역 여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강변 문화 관광 개발 계획'을 최근에 확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강 및 영산강·섬진강 등 4대 강변 36개 지역에 2015년까지 총 사업비(선도 사업 및 특화 사업) 1,675억 원(지방비 포함)을 투입하여, 친환경 복합 문화 관광 및 레저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금년 1차 선도 사업으로 충북 충주, 전북 익산, 경북 달성 등 15개 지역에서 6개 사업을 착수하여 2013년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2차 선도 사업으로 경기 가평, 전남 나주 등 4개 지역에서 4개 사업을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비에는 모두 948억 원이 소요된다.

금년도에 착수되는 1차 선도 사업으로는 ▲한강 목계나루 문화 마을 조성(충주) ▲낙동강 신 나루 문화 및 레저 스포츠 지대(안동·상주·구미·고령·대구), 생태 습지 관광 체험 루트(창녕) ▲영산강 역사 문화 체험 전통 뱃길(무안·영암) ▲금강 녹색 바이오 관광 지대(서천·익산), ▲생태 습지 관광 체험 루트 조성(창녕) 등 6개 선도 사업에 총 678억 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2차 선도 사업은 4개로 269억여 원이 투자된다.

< 강변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 선도 사업 연도별 투자 계획 >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2011	2012	2013	2014년 이후	비고
합계	94,834	8,140	44,460	29,230	13,004	
비율(%)	100	8.6	46.9	30.8	13.7	

< 1차 선도 사업 연도별 투자액 >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지 역	총사업비	연도별 투입액		
			2011	2012	2013
남한강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충주	5,600	2,000	3,100	500

사 업 명	지 역	총사업비	연도별 투입액		
			2011	2012	2013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서천 익산	9,280	680	6,100	2,500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벚길 조성	영암/무안	8,960	1,000	5,060	2,900
낙동강 신 나루 문화벨트 조성	안동/상주 구미/고령	25,420	3,460	13,370	8,590
낙동강 레포츠 밸리 조성	달성/고령	11,580	400	10,680	500
창녕 생태습지 관광 체험루트	창녕	7,000	600	4,100	2,300
합 계		67,840	8,140	42,410	17,290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강변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그동안 방치되어온 강과 강변 공간에 새로운 문화의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토 공간을 창조적·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민 삶의 질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오는 5월 12일(목)부터 이틀간 경기도 양평 남한강 연수원에서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 계획 발표 및 사업 확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정병국 문화부 장관이 참가하여 지자체 관광 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화 관광 정책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강변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 선도 및 특화사업 현황

□ 1차 선도 사업: 67,84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지 역	사업기간 (총 사업비)	'11년도 (국비)	사업내용
남한강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	충주	'11~'13 (5,600)	1,000	목계 주막촌, 독방 저잣거리, 강배 체험관, 문화 산책로, 광장 조성 등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서천 익산	'11~'13 (9,280)	350	갈대공방, 갈대 문화광장, 갈대배 제작나루터 조성 등(서천) 생태에너지공원, 에너지제로 야영장, 수변 산책로 등(익산)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벚길 조성	영암, 무안	'11~'12 (8,980)	500	남해 포구 복원, 선착장 조성, 아트랜드마크 설치 등(영암) 주룡나루 및 석정포 복원, 랜드마크 조성 등(무안)

사 업 명	지 역	사업기간 (총 사업비)	'11년도 (국비)	사업내용
낙동강 신 나루 문화벨트 조성	안동,상주 구미,고령	'11~'13 (25,420)	1,730	지역별 나루터 조성, 주막촌, 황포돛배 제 작, 나루 축제 등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	달성,고령	'11~'13 (11,580)	200	케이블수상스키장, 계류장 설치(달성) 개경포 공원 조성, 이운나루터 복원,주막 촌 등 조성(고령)
생태습지 체험루트 조성	창녕	'11~'13 (7,000)	600	수변여가지구·습지체험지구 조성, 문화생태 탐방로 등 조성

□ 2차 선도 사업: 26,994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지 역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내용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경기 가평	'12~'15 (9,900)	레저문화 스테이션·선착장·문화광장·강변 산책 로 조성 등
와인테마마을 조성	충북 영동	'12~'13 (4,500)	세계와인공원, 와인 체험관·전시관 조성, 테마공원 및 산책로 조성 등
영산포 식도락거리 조성	전남 나주	'11~'13 (3,094)	홍어음식 거리, 개항박물관, 포구 스테이션 조성 등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전북 남원	'12~'15 (9,500)	소리 아카이브관 건립, 소리 테마관, 소리 영상길, 수 상 공연장 등 조성

□ 특화사업: 72,630백만 원

구분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지 역	사업내용
한강	화천 전통생활문화 공연마당 조성	4,800	'13~'15	강원 화천	- 수상공연장, 공연문화 창작소 조성 - 남강장터, 쪽배제작소, 전통 초가집터 조성
	고양 행주산성 수변 문화 체험지구 조성	5,000	'13~'15	경기 고양	- 한가람 문화전시관, 야외예술 갤러리 조성 - 행주축제무대, 산책로 조성
	남양주 강변 문화경관 조망지구 조성	4,500	'13~'15	경기 남양주	- 경관조망쉼터, 경관산책로 조성 - 야외생태갤러리, 야외이벤트 무대 조성
	제천 청풍호반 수상생태공원 조성	6,500	'13~'14	충북 제천	- 수상생태정원, 수상음악분수 조성 - 녹색수생식물공장, 수생식물 교육 전시장 조성
	단양 충주호 유람선 명품화 사업	6,000	'13~'15	충북 단양	- 선착장 및 산책로 조성 - 유람선 리모델링, 수륙양용 유람선 운영

구분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지역	사업내용
금강	신탄진 물예술 창작지구 조성	5,500	'13~15	대전 대덕	- 물체험관, 신탄진 시민예술창작소 - 물아트로드, 물예술공원 조성
	금강상류 수변휴양 체험마을 조성	5,300	'13~15	전북 진안	- 자연치유 체험관, 명상전망대, 자전거휴게소, 마실길 정비
	강경 포구마을 만들기	5,500	'13~15	충남 논산	- 강경포구 체험관, 강경장 마당, 객주촌, 강경포구 문화공원 조성 - 나루터 복원, 황포돛배 운영
	무주 금강상류 레저 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8,100	'13~15	전북 무주	-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장, 산악 레저 체험장, 산악 전망시설, 수변 야영장, 수상 레저 스포츠 장비 도입
낙동강	함안 에코 싱싱 레저 체험 지대 조성	3,450	'13~14	경남 함안	- 독방체험 지원센터, 독방예술 체험갤러리 조성
	김해 창암 문화체험 공간 조성	2,280	'13~15	경남 김해	- 창암 영상갤러리, 나루터, 창작 스페이스, 야외극장
	합천 오광대 강변마을 활성화 사업	1,560	'13~15	경남 합천	- 율지 문화공연장, 율지나루 조성 - 오광대 아카데미 운영
영산강 · 섬진강	영산강 강변예술 갤러리 조성	3,000	'13	광주 서구, 북구	- 영산강변 예술갤러리 조성, 교량 리모델링, 축제행사 지원
	영산강 정후문화회관 조성	6,140	'13-14	전남 담양, 나주, 무안, 광주 광산구	- 정자 주변환경 정비 및 복원 - 체험 프로그램 지원,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섬진강 문학탐방 테마로드 조성	5,000	'13-15	경남 하동, 전남 구례, 곡성, 임실	- 섬진강 문학탐방센터 리모델링, 야외이 벤트광장 조성 - 섬진강 문학레일로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 녹색관광과 안동순 사무관 (02-3704-9914) | 등록일 : 2011.05.09)

[환경부] 5월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겨요 ~

◇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부부의 날 등 기념일 중심으로 가족단위 생태관광 확대 운영

◇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바우처제도'집중 운영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환경부는 전국 국립공원과 순천만 등 우수 생태관광지에서 67개의 가족단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18개 사무소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이 주관하여 가족, 장애아, 저소득 노인 및 청소년 등 약 7,4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생태관광을 실시할 예정이며,
 - 특히, 저소득층 가족과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관광 바우처제도'도 5월에 집중 운영한다.
-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반달가슴곰 복원현장 체험과 야생화가 되살아난 노고단 트레킹 등을 통하여 자연의 생명력과 소중함을 느끼며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 경주국립공원에서는 부부가 함께 왕과 왕비 취임식 및 마을 순시 등 '신라 왕족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 치악산국립공원에서는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금강소나무 명품 녹색길의 은은한 향기와 썸의 보은설화가 다소곳이 숨겨져 있는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5월 3일, 5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순천만, 무안갯벌 등을 체험하는 '남도 생태관광'을 추진하며,
 - 한강청, 원주청, 전주청 등도 동강유역, 새만금 등에서 다양한 가족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이번 생태관광 참가희망자는 환경부(지방청 포함)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태관광 블로그, 페이스북 북, 트위터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행사내용을 홍보한다.
- 앞으로도 환경부는 명절, 연말연시 등에 맞춰 생태관광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성공적인 친서민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담당 : 자연정책과 정진현 (02-2110-6734) | 등록일 : 2011.05.06)

[서울특별시] 세계 50여개국 대표 홍보 사절단 , 서울문화 체험 참가

- 5.8(일) '2011 미스 글로벌 뷰티퀸 세계대회' 참가자 서울문화 체험 실시
- 50개 여국 참가자 및 관계자 80여명, 경복궁인사동 등 서울명소 방문
- 산케이스포츠 등 외신 동행취재,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다양한 외국인 그룹 대상, 특색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서울시는 「2011 미스 글로벌 뷰티 퀸 (MGBQ : Miss Global Beauty Queen) 세계대회」에 참가차 서울을 방문한 전 세계 50여 개국 8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8일(일) 「서울문화 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복궁, 한강 등 서울 대표 명소 방문, 한식 맛보며 다양한 체험 참여>

- 8일(일) 진행되는 문화체험 참가자들은 먼저 600년의 역사를 지닌 수도 서울의 대표 궁궐인 '경복궁'에서 격조 높은 왕실 문화를 체험하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 생활문화를 살펴본다.
- 이어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인사동을 방문하고, 서울의 랜드마크인 한강을 유람선을 타고 감상할 기회도 갖게 된다. 마지막 코스로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인 N서울타워를 방문해 서울의 현대적 이미지와 자연의 어우러짐을 만끽하게 된다.
- 체험 중에는 불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 한국음식을 세계에 알린다.
- 특히 이번 서울문화 체험은 각국 외신의 관심으로 산케이 등 언론 동행 취재도 이루어져, 해외 미디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 이와 함께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결선대회장 스크린을 통해 서울 문화 체험 영상을 방영하여 대회장을 찾는 내·외국인 뿐만 아니라 20여 개국 시청자들에게도 서울을 알린다.

<10일 서울광장에서 결선 개최, 민속의상퍼레이드, 한복패션쇼 등 볼거리 제공>

- 올해로 24년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전통과 권위를 갖춘 주목받는 세계 미인대회로 오는 5월 10일(화)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결선이 치러진다.
- 이번 결선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민속의상 퍼레이드, 한복 패션쇼, 한국 전통 타악 공연과 다양한 축하공연도 있어 서울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금번 대회는 방송·언론·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중계되고 대회콘텐츠가 해외 20여 개국에 판매되므로 그 홍보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배형우 서울시 마케팅과장은 "서울을 방문하는 다양한 그룹의 외국인에게 서울문화 체험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서, 서울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전 세계에 마케팅하여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관심 갖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담당 : 경제진흥본부 마케팅과 이연희 주무관 (02-3707-8451) | 등록일 : 2011.05.06)

[대전광역시] 대전둘레산길, 계룡산과도 만난다

- 6일, 대전시-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업무협약 체결 -

- 대전의 명물로 급부상중인 대전둘레산길이 국립공원 계룡산과도 이어진다.
- 6일, 시에 따르면 염홍철 시장과 목영규 계룡산 국립공원사무소장이 대전둘레산길 정비 및 계룡산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민편의시설 조성 및 역사·문화·자연자원 조사 등에 필요한 상호 노력과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상호 협력기로 했다.
- 이에 시는 대전둘레산길 12구간 중 국립공원 구역인 9구간(삼재~도덕봉~금수봉~ 빈계산)은 그동안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돼 시민들의 산행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출입통제 구역을 해제하고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 오는 6월쯤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노약자, 어린이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문화경관 및 생태계를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는 2019년까지 220억원 투입, 8개구간 53km에 이르는 계룡산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 김광신 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전둘레산길과 계룡산 둘레길이 이어져 대전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둘레산길이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등산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대전둘레산길 국립공원 구역



(대전광역시, 담당 : 푸른도시과 배중필 (042-600-3697) | 등록일 : 2011.05.08)

[대전광역시] 대전시, 영화촬영지'급부상'

- 수상한 고객들'제작 등 21억원 경제효과, 보조출연 1000여명 고용창출-

- 대전이 영화촬영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 대전시는 올해 초 영화'오늘'(송해교 주연)을 시작으로, 최근'특별수사본부'(엄태웅, 주원 주연)와 '수상한 고객들'(류승범, 성동일 주연) 모두 대전에서 촬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 또 '도가니'(공유, 정유미 주연), '페이스메이커'(김명민, 안성기 주연), '하울링'(송강호, 이나영 주연)이 한창 촬영 중이며, 상반기 중 촬영이 예정된 작품만도 코리아(하지원, 강예원 주연)를 포함 4편이 대기 중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영화촬영이 진행중인 작품들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을 보면스태프와 배우 등300여명이유성구 봉명동 과 대덕구 신탄진동 인근 숙소에서 머물고 있으며, 지역에서 보조출연으로 1천여명이 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 또 숙박?숙식, 촬영진행비, 보조출연 인건비 등 8억여원 정도가 직접사용경비로 소비됐고, 런던영상위원회에서 발표한 표준수치인'경제승수'를 대입하면 20여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 시 관계자는" 대전에 HD 드라마타운 조성되면 더 많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겠다"며"앞으로 전문가를 통한 명소발굴과 영상홈페이지를 통해 드라마·영화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담당 : 문화산업과 최영숙 (042-600-5413) | 등록일 : 2011.05.06)

[대전광역시] 대전 금고동 제2매립장서 조선시대 미라 4구 발견

- 조선 16세기안정(安定) 나(羅)씨 미라 여성 3구·남성 1구...140점 안팎 의류 출토-

- 대전 금고동 쓰레기 제2매립장 조성현장에서 분묘 이장중 조선시기로 추정되는 4구의 미라와 다량의 의류 등리 발굴됐다.
- 대전선사박물관(관장 류용환)에 따르면 지난 2,3일 유성구 금고동 산 110-3번지 쓰레기 제2매립장 조성현장에서 안정(安定) 나(羅)씨 중종 분묘 14기를 이장 중 미라 4기와 140여점 안팎의 의복이 다량 발견돼 선사박물관과 부산대 전통복식 연구소에서 긴급수습에 나섰다
- 이들 안정나씨 묘에서는 조선시대 미이라 4구, 의복 140여점, 백자 명기 16점, 토기 장군 3점, 파손된 백자 명기 등 조선시대 사대부 분묘 부장품들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 출토된 유물은 16,17세기의 의복들로 끝동을 금으로 짠 직금 저고리를 비롯해 다양한 문양의 의복들, 아기 때 입은 배냇저고리, 여아 저고리 등 희귀한 의복이 발견됐다. 특히 묵서(墨書)로 한지에 쓴 한글 편지가 발견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 한글 묵서지는 안정나씨 묘역 중 나신결(羅臣傑)의 부인 신창맹씨(新昌孟氏) 묘와 그 조카인 나부(羅溥)의 부인 용인이씨(龍仁李氏)의 묘에서 2점이 출토됐다.
- 이는 지난 1998년 안동에서 출토된 이응태 부인이 쓴 한글편지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며 보존처리 후 공개할 예정이다.
- 안정 나씨는 15세기 초반 나유선(羅裕善)이 충청지역에 입향 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둘째 아들 나연종(羅連宗, 1443~1488)이 대전 회덕에 거주하면서 안정 나씨 회덕파의 파조가 된다.
- 그 후 나연종과 그의 셋째 아들 나문걸 두 부자는 청산현감을 지내는 등 이 지역의 대표적인 사족(士族)으로 성장했다.
- 이번 발견된 미라는 나연종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로 대전지역의 장묘풍습과 임진왜란을 전후한 장례과정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 아울러 16세기 전반기의 의복들과 명기, 한글로 적힌 편지 등 흥미로운 자료가 많아 귀중한 발굴 사례로 손꼽힌다.
- 이 유물들은 안정나씨문중 호군공파(종손 나배찬)에서 일괄로 대전선사박물관에 기증했고, 부산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소장 권영숙 교수)에서 2~3년간 보존처리를 마친 후 대전에서 특별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담당 : 대전선사박물관 김은선 (042-826-2815) | 등록일 : 2011.05.05)

[경상남도] '제5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성황리에 마쳐

- 징검다리 연휴 나들이객 대거 '몰려'

지난 4일부터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와 진해루 일원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에 5일 어린이날 5만 여명과 8일 어버이날 3만 여명 등 13만 여명의 관람객들로 크게 붐볐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레저 전문 산업전시회로 국내외 굴지의 관련업체와 바이어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전시·체험·관람·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춰 온 가족의 나들이 공간,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견학 현장으로 떠올랐다.

부품·기자재 외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요트와 보트가 3만 평방미터 규모의 주전시장과 해상전시장을 화려하게 장식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해상전시장에 들어선 50피트급 쌍동형 요트 카타마란 앞은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낚시용품 및 해양레저장비 전시·판매전과 함께 세일요트, 모터보트, 카타마란 등 고급 레저형 요트를 저렴하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육상전시장과 해상전시장은 안팎으로 어린이날 및 휴일 날 나들이 나온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실내 전시장에 대형 수조를 설치하고, 그 속에서 관람객들이 직접 스쿠버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출한 스킨스쿠버 현장 교육이나, 1,200㎡(1m×30m×40m) 규모의 대형 탱크에 1~3인용 요트인 덩기요트를 띄운 요트 세일링 교육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낚시 마니아들을 위한 낚시 교실에서는 일본 연사와 한국 연사로부터 낚시 기술과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와 더불어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열린 미술 사생대회는 유치부 및 초등 저학년부·초등 고학년부 600여명이 참석해 그림 솜씨를 뽐냈다.

- '제6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 창원시 강한 의지 표명

이날 개막식에는 경남도 임채호 행정부지사와 박완수 창원시장 을 비롯해 황태수 도의회 부의장, 유원석 창원시의회 부의장, 해군사관학교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각국 대사관 관계자 및 스페인 해양협회장, 호주 수퍼요트협회장 등이 참석해 국제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더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은 테이프 컷팅 후 전시장을 둘러보고 환영리셉션장소로 자리를 옮겨 국내 해양레저 산업의 발전과 국제 교류를 다짐했다.

이날 박완수 창원시장은 내년도 '제6회 대한민국 국제 보트쇼'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요트 계류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건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체성 분명한 산업전시회 개최로 글로벌 기업 통해 해외자본 유치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국제보트쇼'는 2007년 포문을 연 이래 해를 더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레저 박람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행사기간 중에 아랍에미리트 선주의 보트 3척 100억원 발주에 19개업체가 참여해 계약 업체가 확정됐으며, 상담 금액은 44업체 1억3,037만달러(약 1,410억원) 달성, 행사 현장 계약 22업체 2,129만1,000달러(약 230억원)의 실적을 기록해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해양레저산업 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참가업체 스페셜 네트워크를 겸한 비즈니스 장을 마련 5. 5(목) 일본, 5. 6(금) 호주, 5. 7(토) 스페인과 글로벌 네트워킹과 상호 기술교환 및 합작투자 등을 위한 교류모임을 주선하고, 매년 개최되는 보트쇼에 참가자를 확대하도록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그리고 국내 마리나 투자 상담에 적극적이었던 스페인 IPM 매니지먼트사가 금번 보트쇼 행사 중에 한국법인(IPM 코리아) 설립 신청했고, 다음달 중 창원시 일원에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고성군에 요트수리 조선소관련 투자 및 마산-구산 일원에 마리나 관련 시설 투자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수한 산업전시회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를 만들었다.

- 학술세미나와 투자상담회가 결합된 이색 학술행사 열려, '비즈니스 특화 전시회' 면모 보여

산업 관계자 및 유관 단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막일 '비즈니스 데이'의 공식 일정에는 국내 해양레저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글로벌 마리나 포럼'과 '발주설명회'가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글로벌 마리나 포럼'은 마리나 부문 해외 최고의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형 마리나 개발 및 운영방법을 논의하는 행사로, 연사 강연 후 곧바로 국내 업체 및 지자체와 투자 상담회를 벌이는 시스템으로서 단순한 학술 포럼을 넘어서서 비즈니스의 장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날 강연에는 마리나 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미국 벨링햄 마린 대표 에버렛 배빗 외에 경남 마산-구산과 고성에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스페인 IPM 매니지먼트 CEO 패트릭 레이네스, 그리고 호주 수페리어 제티 대표 존 호건 등 내로라하는 세계 마리나산업의 글로벌 리더들이 연사로 나서 '마리나 산업과 요트 산업의 국제적 경향', '마리나 운영 방법', '한국 마리나 산업에 대한 제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경남도 투자유치과 오춘식 과장이 '경남 마리나 개발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균형발전사업단의 제윤억 남해안총괄담당도 남해안시대 사업 내용 및 방향, 미래 비전을 설명

하는 등 국내 마리나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포럼 참가자들의 열기도 뜨거워 인터넷 사전 등록자 109명과 현장 등록자 33명, 총 142명이 참가해 마리나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 중에는 드물게 학생도 있었으나 대다수가 부산항만공사, 울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주)씨케이마린, (재)대한마리나산업진흥회, 한남종합마린, 한국해양대학교 등 유관기업 및 단체 관계자들로 강연이 끝난 후에는 투자 상담회장으로 이동해 연사와 직접 질의응답을 나누고 상담을 벌였다.

경상남도요트산업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 16개국 142개 업체와 해외 바이어 33개국 107개사가 참가한 명실상부한 국제 규모의 전시회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타 전시회에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담당 :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전략산업과 박석조 (055-211-2673) | 등록일 : 2011.05.09)

[충청북도] 과학벨트 조성 충청권 3개시·도 공조 이상없다

- 충청권 3개 시도는 지난 4월 28일 과학벨트 입지평가위원회 회의결과 주요언론에 세종시가 누락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며 과학벨트는 당초에 정부가 약속한대로 충청권으로 조성되어야 하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와 관련한 3개 시도 공조는 지속될 것이며 이를 위해 상호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더불어 과학벨트는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약속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2010년 1월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최적지라고 발표하였음에도 정부가 사실상의 공모에 따른 어떠한 해명도 없었으며, 만에 하나 과학벨트 입지에 충청권을 배제시킨다면 시도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및 정치적 배제 원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주문하였다.
-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이루어질 경우 충청권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노벨과학상 1호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벨트와 충청권의 응용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성장동력 마련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과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거두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충청권 3개 시·도 공조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3개시·도의 공조에는 이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한편 정부에 따르면 과학벨트 최종입지 결과는 5월말경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입지선정과정은 비공개이며 조만간 5곳으로 압축될 예정이다.

(충청북도, 담당 : 공보관 I 등록일 : 2011.05.09)

[충청남도] '한국 관광의 별' 백제단지 관람객 급증

- 상설공연·전국 홍보 등 힘입어 4월 7만명 돌파 -

백제문화단지 관람객이 크게 늘고 있다.

문화공연 등 각종 볼거리 제공과 전국적인 홍보, 드라마 촬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1일 평균 관람객이 2천500명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일 백제문화단지에 따르면, 올해 백제문화단지 관람객은 4월 말까지 총 13만1천81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관람객 수를 보면, 1월 1만1천970명, 2월 1만6천27명으로 비교적 적었으나, 3월 2만6천448명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은 지난달에는 가족단위 관람객이 크게 늘면서 전달의 2배가 넘는 7만6천636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람객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지난 3월부터 제공한 풍부한 볼거리가 발길을 불러 모았다는 분석이다.

백제문화단지는 지난 3월부터 상설 뮤지컬 '서동의 사랑'을 선보이고, 4월 부여군 풍물공연을 진행했으며 오는 13일에는 예산군 보부상 재현놀이, 21일 논산시 공연단체(두드림) 풍물공연, 충남국악단의 상설공연 등을 잇따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예공방촌을 설치, 10개 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백제문화단지는 뿐만 아니라 전국 1만2천여 초·중·고교에 홍보물을 보내고, 수도권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정부중앙청사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 등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펼쳤다.

백제문화단지 관계자는 "백제문화단지는 '2011 한국 관광의 별'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며 "특히 KBS 드라마 '근초고왕'에 이어 6월 본격적으로 촬영이 시작되는 MBC 드라마 '계백' 등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은 백제문화단지를 한류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담당 :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선우한모 (041-830-3423) | 등록일 : 2011.05.04)

[전라북도] 복분자 지역전략식품산업 선정 쾌거

- ▶ 정읍·순창·고창 복분자 클러스터 육성 기반 구축
 - ▶ 복분자산업 R&D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유통활성화 등
- 전라북도는 그 동안 2011년 복분자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 유치를 위하여 정읍·순창·고창군이 함께 2009년 7월부터 준비해온 복분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 2010년 6월에 공모사업을 신청, 농식품부의 서류,현장,공개평가를 거쳐 2010년 12월에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전북복분자식품사업단(단장:이경수)는,
- 민간주도형 복분자 비즈니스 체계 구축, 품질표준화를 통한 국내복분자산업 선도, 복분자 광역클러스터 조성, 가공상품 수출 650만불 달성, 복분자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복분자 R&D를 통한 지적재산집약형산업 추구 비전을 제시하여 영광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특히, 이 사업은,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아래 준비된 사업으로, 애초에 복분자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복분자 광역클러스터를 조성하라는 지사님의 지시로,
- 복분자와 관련된 산학관연 간담회('09년 6월 23일)를 시작으로 생산주체(생산자,가공업체) 연합회 구성 운영, 광역협의회 구성 운영, 광역조직화 교육, 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 농가조직화 교육, 주요 사업비 분담방법 합의, 복분자 품질관리 등급 마련, 외부대형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사업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고스란히 심사 평가에 반영되어 '11년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임
- 이번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 선정을 통하여 '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5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복분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투입되게 됨 * 총사업비 59억원 : 국비 25, 지방비 31, 자담 3
- 사업단 운영 지원, 복분자 조직화, 조직·경영·유통·마케팅 지원 컨설팅, 복분자 생산·가공 R&D 기술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유통시장 개척, 3차 관광산업 육성, 전자상거래망 구축, 연구지원시설 구축 지원
- 단순 생산과 단순유통 중심의 사업에서 지역특산품을 융·복합 산업화하여 농식품산업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견인 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식품기업과 연계한 상생모델 구축하여 명실공히 복분자 주산지로서 복분자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임
- 전북도는 금번 지역전략식품산업 선정이 출발선으로 재인식하고

기 조성된 복분자 광역클러스터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유지 성장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전라북도 복분자 생산현황 >

- ◆ 재배면적 : 2,848ha (전국 3,368ha의 85%점유)
 - ※ 주재배지역 : 고창 1,237, 정읍 699, 순창 560 등
- ◆ 생 산 량 : 12,055톤 (전국 14,411톤의 84% 점유)
- ◆ 농 가 수 : 8,704호 (고창 4,623, 정읍 2,323, 순창 1,127 등)

(전라북도, 담당 : 친환경유통과 (063-280-2693) | 등록일 : 2011.05.06)

[전라북도] 기적의 땅' 새만금 「중국특화 프로젝트」로 세계 경제 중심으로 비상

▷ 하늘길·바닷길 직항로-해외기업 인센티브-공동연구 등 '중국 특화' 단계적 확대

▷ 글로벌 초일류기업 삼성그룹 새만금 투자로 '새만금 대중국 프로젝트' 탄력

□ '기적의 땅' 새만금이 '기회의 땅' 중국을 품고 세계로 도약한다

- 전라북도가 「새만금 중국특화 프로젝트」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비상하기 위한 날개를 활짝 펼친다.
- 전북도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 내부개발 원년을 맞은 올해 「새만금 중국특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새만금 중국특화 프로젝트」는

- 화교자본 등 외국자본과 관광산업을 유치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 2대 국가인 중국시장을 겨냥한 국내외 기업이나 자본까지 끌어안아 새만금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새만금과 중국간 다양한 직항로를 개설하고 새만금에 중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중국인의 비즈니스 활동과 정주 및 생활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중국인 투자유치와 중국을 겨냥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과의 교류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새만금을 한국의 중국특화지구로 육성한다면 중국을 기반으로 하여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특히 최근 세계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이 중국시장을 겨냥하여 새만금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를 결정하면서 「새만금 중국 특화프로젝트」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 새만금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 「새만금 중국 특화프로젝트」는 먼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 이후 새만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전북도는 우선 새만금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새만금과 개발속도가 비슷한 강소성을 중국 거점으로 하면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동부 연안의 빈해신구를 동시에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전북과 17년간 협력관계에 있는 강소성을 타깃지역으로 하여 중국 동해안 개발의 핵심프로젝트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강소연해개발지역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했다.
- 빈해신구는 중국 동부 연안의 빠른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3대 특구 중 하나로 현재 중국내 가장 성공적인 보세구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북과는 2009년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주축으로 관계를 맺어왔다.

□ 「새만금 중국 특화 프로젝트」 추진 방안으로는

- ▲ 하늘길·바닷길 직항로 개설 ▲중국 등 해외기업 투자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양 지역간 공동연구 등이 있다.

▲ 하늘길·바닷길 직항로 개설

- 하늘길, 바닷길 개통은 2012년 군산공항과 중국 간 국제선을 취항하고 군산항과 연운항 간 운항횟수를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와 함께 2014년 운항을 목표로 군산항과 중국 간 신개념 교통수단인 위그선 운항도 추진한다.

▲ 중국 등 해외기업 투자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 새만금 산업지구와 새만금 관광지구, 고군산군도지구로 나눠 산업·관광·교육 분야에서 중국 및 해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 (새만금 산업지구) 저탄소 녹색기술과 첨단산업이 만나는 청정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25일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1895천㎡, 57만 4천평)에 지정된 종합보세구역 을 통해 관세면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5월 중에는 새만금경제청과 빈해신구 내 동강보세구와 우호협력을 체결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임대산업단지를 활용, 660천㎡(20만평) 규모의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해 중국기업과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 또한 원스톱(One-stop) 새만금 중국투자사무소를 개설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해 주는 등 각종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토지특례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특례 등도 고려하고 있다.
- (새만금 관광지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해양관광벨트로 조성된다.

- 전북도는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랑팡국제경제무역박람회'에 참가, 글로벌 기업 및 중화권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중국특화 프로젝트」를 포함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소개하고, 복합형 대형 리조트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고군산군도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와 리조트형 마리나항 건설도 추진한다.
- 또한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부여 제도' 시행도 준비 중에 있다.
- (교육분야) 한·중 유학생 교류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 우수대학과 학점공동이수제 등의 상호 교육협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화권 글로벌 캠퍼스 분교를 유치할 계획이다.

▲ 양 지역간 공동연구

- 양 지역의 지식교류를 통해 정책적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 전북발전연구원과 강소성사회과학원간 공동연구, 양 지역간 전략산업분야의 연계협력 등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양 지역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실제로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중국인에게 설득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 싱크탱크인 중앙사회과학원이 상반기 중 새만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하고 있다.
- 그 밖에도 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호 교류,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교류, 공무원 상호 파견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전라북도와 강소성 특화 프로젝트 추진 협력 강화

- 「새만금 중국특화 프로젝트」를 지난 3월 완성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의 씨앗으로 삼고자 하는 전북도는 우선 전라북도와 강소성 특화 프로젝트 추진 협력 강화를 위해 양 자치단체장의 상호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대중국 특화전략 추진과 연계해 현재 산동에 있는 전라북도 중국사무소를 대규모 잠재 투자자들이 밀집돼 있는 대도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이인재 기획관리실장은 "중국은 이미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중국의 관광객과 자본, 기업을 먼저 끌어들이는 한편 중국시장을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열쇠"라며 "「새만금 대중국 특화프로젝트」가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용으로 비상하게 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담당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063-280-2085) | 등록일 : 2011.05.06)

[전라남도] 전남도, 동남아 관광객 유치 발벗고 나서

— 올해 3만5천명 목표...현지 관광설명회 등 통해 F1·여수세박 등 홍보—

전라남도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 관광이 심리적으로 위축돼있는 동남아 관광시장 공략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0년 전남 관광객 분석 결과 동남아 여행객은 2만7천명으로 2009년(1만9천명)보다 42%(8천명)가 늘어나는 등 동남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 관광객이 선호하는 곡성 기차마을,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등 역동적 상품을 중심으로 유기농 과일(딸기, 토마토) 체험, 녹차음식만들기 체험, 염전체험 등 다양한 체험 상품을 개발해 전략적으로 홍보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관광객 3만5천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복완 도 관광문화국장을 단장으로 여수세계박람회, F1대회조직위와 합동 마케팅단을 구성, 8일부터 14일까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남상품 판촉 활동에 나선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개국에서 개최하는 관광설명회에는 F1조직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2011 영암 F1대회'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홍보한다.

현지에서 한국 상품을 취급하는 디스커버리, 저니랜드, 아시아캐세이, 애플버케이션, GTT여행사, 준에어여행사, 증형제여행사, 슈퍼 트래블 여행사 등 각국의 10대 메이저급 여행사를 포함해 80여개 여행사가 참여하며 남도 관광자원과 F1, 박람회 등 빅 이벤트를 집중 홍보하게 된다.

또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지 지사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선 발굴 마케팅을 벌이고 한국에 관광객을 보내는 주요 여행사를 직접 방문해 전남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와 항공 이용에 대한 편의 등을 협의한다.

관광상품은 남도풍경여행, 체험여행 등 기존 운영중인 5개 상품에서 남도별미 여행 등 4개 상품을 추가 운영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제관광박람회 전남홍보관 운영, 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 현지 언론매체 전남 광고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양복완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한류 영향 등으로 방한 관광객이 연평균 30~4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를 활용해 한국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남도체험 상품을 개발 홍보하는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당 : 관광정책과 (061-286-5240) | 등록일 : 2011.05.07)

[전라남도] 박지사, "나주 죽산보에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나주지역 도민과의 대화서 혁신도시 개발 극대화 등 강조—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4일 "나주 죽산보 주변에 친환경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나주시청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갖고 "남도 문명 발생지인 영산강이 죽어가면서 나주를 비롯한 영암 등 유역 내 지자체 및 상권이 모두 시들해졌다"며 "현재 추진중인 영산강 살리기를 통해 수질 개선 이후 정부와 협의해 조성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또 "어떤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 후손의 삶이 달라진다"며 "지역 내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산업으로 개발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주는 100년 목사골로 호남의 중심지였으나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도시 경쟁력을 잃어갔다"며 "혁신도시 조성 이후 입주 기업과 인구 유입 등에 대해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공동혁신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관 조성 과정에 전통문화를 담아야 한다"며 "주거지역에 한옥단지를 조성 등이 좋은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제역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미래 의식주 산업은 엄청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주 친환경농업단지와 연구기반이 마련된 식품산업연구단지, 생산자·유통업체 등이 유기적인 협업체를 구성해 이를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지사는 또 "시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천연염료산업은 의류를 비롯해 식품까지 활용범위가 넓다"며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가 소득 아이템 개발에 전남도도 합심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산업분야 육성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환경 투자만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며 "지역 내 부족한 교원 확보 등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와 지역민들은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방공무원 교육 유치 및 혁신도시 한국전력 사옥 조기 착공, 영산강 살리기 사업 극대화 방안, 친환경 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전라남도, 담당 : 행정과 (061-286-3320) | 등록일 : 2011.05.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도심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명소화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 제주시 구도심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의 야간관광활성화와 주변상권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갖추어 나감으로서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해
- 가칭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주)우주엔지니어링과 도내 1개사와 지난 4월말 계약을 체결하여 9월 중 완료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탐라문화광장 사업구상은

- 국내·외 관광객의 만남과 쇼핑,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을 결합한야간관광중심지화를 위해 개발 트렌드 분석, 벤치마킹, 기초조사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의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 또한, 탐라문화를 배경으로 한 독특한 컨셉을 구상하여 도입시설 간의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제주관광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소재의 시설로 선정토록 하여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화로 컨셉을 구상토록 했다.

예) 싱가포르 산토섬의 사자상, 음악분수, 라스베가스의 LG 레이저쇼 등을 참고하여 아케이트, 분수, 야외무대, 세계음식점 등

□ 사업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도

- 경제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정책적 분석과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추진여부, 사업간 투자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사업의 최적대안과 추진시기 등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 9월중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설계를 공모하고, 2012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용역사업 현황】

용역명 : 가칭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사업비 : 97,500천원

용역기간 : 2011. 4. 29. ~ 2011. 9. 25

계약자 : (주)우주엔지니어링(충남 아산),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 도시디자인단 (064-710-2744) | 등록일 : 2011.05.09)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항공사의 가격인상

- 6월 1일부터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료 도입으로 인해 항공비가 인상될 예정임. 이에 대해 <아에로플로트>과 <트랜스아에로>는 여행사들에게 이미 알림. 유류 할증료가 25% 인상되었고 이는 시장의 전반적 현상이기에 아직 항공가를 인상하지 않은 나머지 항공사들도 조만간 인상할 예정임
- 유류 할증료는 특정 노선에 대한 운임에 따라 부과될 것이며 운임의 6~10%정도임. 항공사 <네바>의 책임자 세르게이 부라콥은 달리는 하락세를 보이지만 유류 할증료는 인상된다고 이야기함.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인해 관광 비용도 오를 것임. 이미 크레타와 튀니지 관광은 40유로 인상, 불가리아-15유로 인상, 베트남과 터키-30유로 인상됨
- 세르게이 부라콥의 의견에 따르면, 항공가의 인상은 다가오는 여름 시즌에 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만약 5월에 연방 항공 수송 기관이 11개의 항공사에 대한 66개의 전세 비행편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재고하지 않을 경우 항공가가 인상될 수 있음
- 지난 2월 외항사들은 이미 최소 10%의 비행기 표 가격을 인상 함. 호주 항공사 콰타스 항공은 53달러까지 가격을 인상함. 루프트한자와 에어프랑스도 10유로 인상함. 이외에도 KLM, 델타, 말레이시아 항공, 케세이 퍼시픽, 영국 항공, All Nippon Airways, 싱가포르 항공, 남아프리카 항공과 JetBlue가 유류 할증료를 인상함

(출처 : <http://www.tourinfo.ru/news/36119/>)

(한국관광공사, 담당: 유여진 (glaryuj@mail.knto.or.kr) | 등록일 : 2011.05.06)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중국 관광 발전 연간 16.9% 성장, 세계 평균 5배 초과

- 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주임 장광루이는 중국 관광은 작년에 좋은 성과를 달성했으며 특히 세계 관광 회복에 기여했다고 발표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6.7%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이 중 중국이 주로 공헌한 것이 가장 큼. 지난 10년 사이에 세계 전체 관광 발전 속도는 3.2%이나 중국의 성장 속도는 16.9%로, 중국 국제 관광 발전 속도는 세계 평균 수준의 5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전 세계 국가 관광 경쟁력 부분에서 중국은 2007년 71위에서부터 2010년 39위로 순위가 급상승하여, 4년 만에 32위가 성장함.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임
- 장광루이는 관광산업 발전 특징으로 보면, 관광 부동산업 발전이 강세라고 언급함. 관광 부동산은 매우 유행하는 개념으로 국가전략의 여행업과 조정에 당면한 부동산업이 함께 융화된 것으로 봄. 관광 관련 사업으로 상업적 숙박시설에서부터 테마파크와 종합 관광 지구까지 다양함. 규모가 크고, 전파범위가 광대하며, 복합작용이 뛰어나고, 자본이 거대함.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이끌어냄
- 장광루이는 호텔산업이 비록 가장 최근 2년 동안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나 올림픽, 엑스포, 아시아 올림픽 등 대형 국제 행사와 지역 축제 활동을 유치함에 따라 중국의 호텔업은 계속해서 고도성장을 유지하였으며, 작년에는 고급 호텔과 경제적인 호텔이 동시 성장 형세를 보였다고 지적함
- 특히나 고급 호텔은 북경, 상해, 중경, 광주 및 강소, 호남, 호북성 등 성과 도시에 다수 집중되어 있으나, 경제적인 호텔인 2, 3급 호텔은 도시에 넓게 퍼져있음. 국제 유명 브랜드 호텔 그룹이 중국에 새롭게 진입한 호텔 그룹은 Four Season, St. Regis, Aman, 리츠칼튼, 인터컨티넨탈, 메리어트, 웨스틴, 쉐라톤 등으로, 모두 새롭고 거대한 중국 발전 계획을 수립함. 중국의 여러 국내 브랜드 호텔이 적지 않은 발전을 달성하여 2005년에 중국 호텔 중 세계 50위에 진입한 호텔은 锦江 한 곳이었지만 작년에는 50위 안에 진입한 호텔이 10곳임. 그러나 중국 브랜드 호텔 그룹의 발전은 국제 브랜드와 브랜드 효과, 자금, 경영관리, 신기술의 응용 및 인력자원 방면의 도전에 있어,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

(출처 : 中国新闻网, 2011.4.27)

http://travel.ce.cn/news/hyxw/201104/27/t20110427_22388885.shtml

(한국관광공사, 담당: 유여진 (glaryuj@mail.knto.or.kr) | 등록일 : 2011.05.04)